

# 전남 어업생산량 전국 55%

## 상반기 85만5000t...생산액 8891억

‘친환경 수산 1번지 전남’이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 국한했던 친환경 개념을 수산 분야에 도입해 깨끗한 수산물 생산에 나선 덕분이다. 또 아열대 기후에 대처해 높은 온도에서도 잘 자라는 다시마 종 생산에 돌입하는 등 지자체와 어민, 연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소득 다양화도 꾀하고 있다.

26일 전남도는 “도내 올 상반기 어업 생산량이 85만5000t에 달하고 이에 따른 생산 금액은 8891억원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생산량(80만2000t)보다 6.3%가 늘어난 것이며, 생산 금액도 지난해(8805억원)보다 1%가 늘어난 수치다.

또 전국 총 생산량(155만8000t)과 생산금액(2조8536억원)의 55%를 차지하는 규모로 전남이 전국 제1의 수산 생산지역임을 입증한 셈이다. 상반기 어업 생산량은 전남에 이어 경남 31만5000t(20%), 부산 15만7000t(10%), 경북 6만2000t(4%), 충남 4만6000t(3%) 순이었다.

전남의 어업 생산량이 증가한 것은 일본 원전사고 이후 대일수출이 늘고, 유럽·중화권으로 수출 지역도 다변화됐기 때문이다. 또 국내 수산물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시장 수요에 맞춰 어종을 확대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와 고부가가치 양식 품목인 전복의 면허 면적을 확대해 생산이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품목별 생산량 순위로는 미역 28만2000t, 다시마 23만7000t, 김 22만7000t, 굴 1만5000t, 멸치 1만3000t, 뚝 9000t, 홍합 8000t, 넙치 7000t, 참조기·과래 5000t, 조피볼락 4000t 순이다.

생산 금액은 김 1636억원, 전복 1210억원, 넙치 767억원, 낙지 602억원, 볼락이 466억원, 미역 439억원, 참조기 355억원, 다시마 343억원, 병어 289억원, 조피볼락 278억원 순이다.

전남도 양근석 수산자원과장은 “최고 품질의 친환경 수산물 생산을 늘리고, 양식어업의 기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미래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주요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물폭탄 여수...복구 구슬땀

지난 24일 쏟아진 폭우로 웅벽이 무너진 여수시 고소동에서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24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여수지역에는 1942년 관측 이래 일일 최대 강수량인 308.8mm의 폭우가 쏟아졌다. (여수시 제공)

# 태블릿 PC로 공부하는 ‘자연’

## 국립공원 전자교과서 첫 선

IT장비에 익숙한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형태의 환경교육 교보재가 첫 선을 보였다.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소장 박용규)는 나주시 산림자연연구소에서 열리는 ‘2012년 대한민국 산림박람회’에서 국립공원 전자교과서 홍보관을 운영, 태블릿 PC를 활용한 8종의 국립공원 전자교과서를 일련에 공개했다.

‘국립공원 전자교과서’는 태블릿 PC를 활용해 국립공원의 자연·역사·문화자원을 미래세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으로 알려지는 목적으로 개발된 환경교육 교보재이다. 특히 국립공원 자연환경 해설사가 각급 초등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유치원, 어린이집을 찾

아가는 환경교육프로그램인 ‘방과 후 돌다리 환경교실’의 24개 카테고리를 채택해 학습 효율성을 높였다. /서부취재본부=이성선기자 sslee@

# ‘총체적 부실’ 영광 소하천 정비

## 일부 구간 설계와 달라...지반 침하돼 건물 균열도

영광군이 지난 2월 준공한 범성면 대덕 소하천 정비사업의 일부 구간이 당초 설계와 다르게 시공됐는데도 준공이 이뤄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해 4월 총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총연장 897m의 범성면 대덕리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하지만 하천의 상단부 넓이가 당초 설계(7m)보다 좁은 5m로 축조됐고, 법면의 경사각도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군은 하천부지 및 상단부 폭의 확보를 위해 공사비의 2억3000여 만원의 보상을 들여 부지를 구입해

놓고도 정작 공사는 설계보다 축소 시공해 유량감소의 문제점과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마저 일고 있다. 또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관련 시공사는 공사중 건물쪽 지하수 누출로 지반침하 우려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감독관은 주변 건물 균열 및 지반 침하에 대한 민원마저 상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시공 우려마저 일고 있다. 주민들은 “민원이 발생한 인근 지

## ‘연근해 어업주식회사’

목포시, 내년 설립

목포시가 어업인의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자생력을 갖춘 규모화된 기업화를 목표로 가칭 ‘목포 연근해 어업주식회사’를 내년에 설립한다.

시는 전남도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난 4월에는 목포연안통발 자율공동체를 비롯한 어선어업 자생단체 대표들을 대상으로 가칭 ‘목포 연근해어업 주식회사’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주식회사가 설립되면 개별단위의 전통적 경영 방식을 조직화해 경영비 절감과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이 기대된다. 어업인이 생산한 어획물을 현재 단순판매(수협 위판)에서 가공, 유통, 판매로 발전시킬 수 있어 수산업의 규모화와 기업화를 이룰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c@

# “동학농민혁명 유물 삼니다”

기념관, 고문서·무기 등 내달 17일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은 전시와 연구, 교육을 위해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을 구입한다.

구입 대상은 1894년 동학 농민혁명 전후의 고문서와 무기, 교통, 농경, 의식주 관련 자료 등 동학농민혁명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유물이다. 도굴품·장물 등의 불법유물은 신청할 수 없다.

신청 기간은 9월 11일부터 17일까지이며, 유물 매도신청서와 매도대상 유물명세서, 신분증, 유물 사진 등을 기념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된 유물은 동학 농민혁명기념관 유물평가 위원회와 유물 감정평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과 구입 여부가 결정된다.

장진열 동학 농민혁명기념관 학예연구원은 “구입된 유물은 전시와 연구, 교육을 통해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널리 알리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며 “유물 소장자들은 관람객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생생히 체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전주 풍남문 한마당잔치 개막

## 11월까지 매월 2회 공연

전주시 풍남문 상가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연이 오는 11월말까지 월 2회 펼쳐진다.

풍남문 상인회(회장 김홍기) 주최하고 (사)아리랑문화 예술원(원장 안선희) 주관으로 열리는 한마당 잔치는 24일 문화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23일까지 매월 격주 금요일마다

풍남문 광장에서 열린다. 이날 행사는 전통예술인 국악을 비롯해 고전무용, 풍바, 초대가수, 그룹 밴드 공연 등이 펼쳐져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했다.

보물 제308호로 지정된 풍남문 인근에 조성된 풍남문 광장은 관광객이 상가와 남부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민 휴식공간으로도 인기를 끌고 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군산에 국내 첫 건설기계 지원센터

국내 최초로 건설기계 전문 성능 시험 평가기관이 군산에 구축됐다.

군산시는 “건설기계 제조산업의 기술발전 및 시험인증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위한 ‘건설기계종합지원센터’가 지난 24일 군산시 오식도동에 문을 열었다”고 밝혔다.

건설기계 종합 지원센터는 글로벌 시장에서 건설기계 산업을 선도하는 연구개발과 성능시험 평가, 인증 원스톱 체계구축, 기업지원 등 종합기능의 거점공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nogusu@

# 대대손손 마을역사 한눈에

## 정읍 원오봉마을 박물관 개관...농기계 등 생활상 전시

정읍지역에 처음으로 마을 박물관이 들어섰다.

정읍시는 지난 23일 태인면 원오봉마을에서 김생기 시장과 김승범 시의회의장을 비롯한 기관단체장과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가운데 박물관 준공식을 가졌다.

소박하게 마련된 박물관에는 그동안 주민들이 농작업에 사용했던 농기계, 주민들의 정겨운 손때와 시간의 무게가 내려앉은 골동품과 각종 생활용품, 옛 생활상과 추억을 담은 오래된 사진 등 마을의 역사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다. 원오봉마을 주민들은 마을내 흉물이었던 빈집과 무너진 담장 등을 정비해 42㎡ 규모의 마을 박물관을 건립했다.

또 박물관 건립에 맞춰 마을 진입로도 정비하고 꽃과 나무를 심는 등 쾌적하게 조성했다. 마을 인터넷 카페(cafe.daum.net/won-o-bong)에는 주민들이 오순도순 박물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 올라와 있다.

박물관 건립은 정읍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

업’의 1단계 사업으로 추진됐다. 주민들은 앞으로 원두막 설치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속적인 빈집 정비 등을 통해 마을 경관개선은 물론 소득창출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욱 마을만들기 추진위원장은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을 만들어 외지에서 생활하는 자녀와 출향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랑스런 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박물관을 건립했다”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내고장 8월은 포도 수확의 계절

이원주 남원시장이 최근 남원시 아영면 봉대리 포도 재배농가를 찾아 포도 수확 현장체험을 갖고 있다.

/전북취재본부=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 단신

### 도교육청, 유·초·중 교사 180명에 임명장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월 1일자로 신규 임용되는 유·초·중 144명·중등 36명 등 신규교사 180명에게 지난 23일 임명장을 수여했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앞으로 교사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교직

생활에서 보람과 감동, 자존감을 찾는 것은 여러분 몫”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아이들은 날마다 여러분에게 맡겨 온다. 아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쫓아라”고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정읍보건소, 청소년 임신부 의료비 지원

정읍시 보건소는 청소년 산모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43명에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했다.

이와 함께 시 보건소는 청소년 산모가 편리하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

리은행과 협력해 ‘맘편한카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자는 ‘맘편한 카드’를 받은 날로부터 분만에정일 이후 60일까지 의료비 지원 요청기관으로 등록된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북취재본부=박기섭기자 parkks@

### 고창군, 민원 모니터 요원 14명에 위촉장

고창군은 고체감동 민원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원모니터단 위촉식을 갖고 모니터 요원14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에 위촉된 민원모니터 요원은 2014년 8월까지 2년간 민원인 불편사항을 발굴,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활동하게 된다. 또

민원처리시 공무원의 불친절 행위, 위법 사례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을 펼친다. 고창군 관계자는 “민원모니터 요원들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

### 부안농기센터, 병해충 방제기간 연장

부안군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잦은 강우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이 우려됨에 따라 분담 2차 기본방제 기간을 연장했다.

중·만생종의 경우 출수가 전후에 강우 및 침수로 이삭도열병, 세균성 벼알마름병, 흰잎마름병

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방제가 요구되고 있다.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방제를 철저히 해 고품질 쌀을 생산하고, 병해충 피해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취재본부=강철수기자 knews@